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시작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표적인 공약이 적폐청산이었다. 민주공화국이 출범한 70년 동안 역대 정부가 한결같이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막강한 권력의 내부에서 압행된 다양한 적폐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공개됨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부정부패의 핵심인 뇌물, 불평등거래, 각종 범죄비리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비선진료, 권력자들의 대포폰, 고위층의 특례 부정인사, 각종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등 청산과 척결을 필요로 하는 폐단과 구습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집단의 보수 혹은 진보적 이념 성향에 따라 국가보안법이나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다. 과연 민주주의라는 불확실한 정치제도 안에서 100% 적폐청산이 가능한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적폐청산은 정의로운 주장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 100%의 국민들이 모두 만족하는 삶의 내용과 질을 보장하는 민생 개선이 우선이다. 지금까지의 적폐청산은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는 대신 그늘끼리의 권력투쟁으로 귀결되었던 점이 그 의문의 핵심이다.

대통령이나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은 모두 정치세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이고 수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평범한 시민 개인의 일상적 삶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사람 중심의 정치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한다. 대통령이란 진화 발전된 시대정신을 국정철학으로 삼을 수 있는 시대를 앞서는 감각과 방법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어질고 지혜롭고 훌륭한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고 한 것이다.

필자는 인간의 이기심을 제도과 법으로 차단하고, 인간의 선량한 본성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국정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온전한 삶의 정도正道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한다.

메시아 출현 이후의 시대정신
적폐청산 0순위 - '나'라는 주체의식
적폐청산 1호 - 죽음의 종교 & 학문

구세진인 메시아의 출현으로 인한 불사영생의 희소식으로 영원한 인생의 불을 맞이한 지 37년이 흘렀다. 봄 춘(春)자를 파자하면 삼(三)+인(人)+일(日)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1980년 10월 15일 대한민국에서 이긴자 구세주로 출현하신 것이다. 구세주 메시아는 인류역사 6천년 동안 인간의 학문과 종교가 논하지 못한 새로운 학설을 논한다.

구세주 메시아의 새학설

대국민 메시지

국민대통합과 민생안전으로 나아가는
적폐청산積弊清算, 그 시작과 끝

① 마귀의 조종을 받아 피가 썩어
“사람은 지금부터 6천 년 전에는 하나님이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되는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한 몸이었는데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순간 남자와 여자의 몸으로 둘로 쪼개진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 온 것이다. 마귀는 사랑의 영이요, 마귀는 사랑의 생명을 죽이는 영인고로 주체 영이 마귀의 영이 되어 있는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람의 마음이 마귀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이는고로 점점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생각이 움직이면 피가 썩는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 세상 학자들이 모른다.

② 만물은 하나님과 마귀의 병존체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 사랑권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야 영생활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될 수 없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랑권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적 생명과일이다. 신이 물질이요, 물질이 곧 신이다. 이 세상 만물이 신이요, 신 자체가 곧 만물인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은 모두 신인데,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 두 종류의 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도 하나님의 물질과 마귀의 물질이라는 두 종류의 물질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물질은 생명의 물질이요, 마귀의 물질은 곧 사탄의 물질이다. 이 세상에 있는 흠도 신이요, 나무도 신이요, 쇠도 신이다. 원래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했으니, 물질 자체가 바로 말씀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야 할 것이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 마귀가 하나님을 욕에 가두어 놓고 마음대로 창궐하고 있는고로 하나님의 신이 마귀의 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③ 사람이 생명의 원천체
하나님의 신은 무극(無極)의 신이요 중성(中性)의 신이기 때문에 중성자 속에 생명의 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다. 중성자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빛이 방출되고 있다. 하나님의 빛이 방출되므로 말미암아 세상만물이 살고 있는 것이다. 산에 나무가 살고 있는 것은 땅 속에도 생명의 물질이 있기 때문이며,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은 물 속에 생명의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만 신이 아니요 이 세상 만물이 신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잔디는 왜 살며 동물들은 왜 살까? 그것들이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사람 몸에서는 마귀의 영이 되는 독소 물질이 쏟아져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되는 생명의 물질도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생명의 물질이 쏟아져 나와 공기속에 함유되었다가 비가 올 때 강이나 바다에 떨어지므로 물고기가 사는 것이다. 빗물이 땅에 떨어질 때 나무와 풀이 생명의 요소를 받아서 싱싱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비가 온 후나 새벽에 이슬이 내렸을 때 채소가 싱싱해지는 것은 생명의 물질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영 때문이며, 사람 속에서 방사하는 생명의 영 때문에 만물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학설을 최고의 지식인들이 긍정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거의 다 이루어진다.”

지금은 구세주 메시아의 불사영생의 학설을 시대정신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신의 친정시대다.
제비가 날아오니 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봄이기 때문에 제비가 날아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은 대통령 개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전체와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사회전반에 민연한 적폐청산을 위한 이긴자 구세주의 영적 심판을 의미한다.

북핵 문제, 강대국과의 갈등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구세주 출현의 희소식

북핵 문제 등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유엔 등 강대국과 국제단체 최고 지도자들이 고민하며 분주한 모습이 참으로 흥미롭고 애처롭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과 같이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우매한 백성들, 인류역사 6천년 동안 부정과 부패와 전쟁과 살인, 차별과 갈등을 일으키는 적폐의 주범은 '나'라는 주체의식의 마귀영이며, 이것이 주관하는 죽음의 종교와 학문이다. 이를 모르고 적폐청산의 대상인 인간들이 오히려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으니 이것을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대학의 길, 위대한 지도자나 성인이 삶에 도달하기 위한 크고 높은 학문의 길에는 삼강령(三綱領)과 8조목(條目)이 있다고 논한다. 강령(綱領)이란 일의 근본이 되는 뿌리이자 줄기역할이며, 조목은 가지역할이다.
삼강령이란, 명명덕(在明明德) : 1. 밝은 덕을 소유해서 밝히는 일, 2. 신민(在 新民) :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3. 지어

지선(在 止於至善) : 지극한 선에 머문다.

8조목(條目)에서 1.격물(格物)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끝까지 따지고 파고들어 궁극의 목적에 도달함을 이르는 말로 이상적인 정치를 하기 위한 첫 단계를 이르는 말이다. 2.치지(致知)는 격물의 과정을 거쳐 어떤 사물의 도리를 깨달음이고, 3.성의(誠意)는 치지의 과정에서 어떤 이치를 깨닫게 되니 성심성의(誠心誠意), 곧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다해 진실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4.정심(正心): 성의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다하게 되니 정심, 곧 바른 마음을 가지게 된다. 5.수신(修身): 정심에서 마음을 바로 잡으니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여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하게 된다. 6.제가(齊家): 수신에서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으니 집안도 다스리게 된다. 7.치국(治國): 제가에서 집안을 잘 다스리듯이,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므로 8.평천하(平天下): 천하를 평정(난리를 평온하게 진정시킴)하게 된다.

대학의 길은 큰 덕을 소유해서 밝은 덕으로 자신을 밝혀 깨달음으로 선을 행하여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도달케 하는 것이다. 대학(大學)에서 논하는 각 과정들은 그 시간적 순차성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각각의 상호보완 연관성, 그 전체적 통일성에 깊은 뜻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진의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인간의 죽음은 정당하고, 죽음 이후의 천국과 극락을 전제로 구원을 논하는 모든 종교의 행태가 그러하다. 이러한 구업(口業)의 적폐를 제거하기 위해 구세주의 출현이 필연적이다.

창조와 도전의 상징 실리곤벨리보다 더 창의적인 불사영생의 학설을 논하는 Immortal Valley소사 안곡(安谷) Venture Community 승리제단

지금 대한민국 대학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대한 태풍의 중심에는 인류역사 6천년 만에 최초로 수신(修身)에 성공한 극기승자 구세진인 메시아(=정도령, 생미륵불)와, 천지개벽을 주관하는 제가(齊家)의 현장인 승리제단이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새 대통령에게 하늘은 말한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긴자 구세주의 진리와 ‘누구든지 내 몸, 내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유율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치국(治國)’하라!”

이긴자 구세주가 출현한 사실이 세계 만방에 알려지면 열국의 왕들이 재물을 들고 구세주가 출현한 대한민국으로 몰려들어 최고의 부자나라가 된다고 했다. 경제적인 풍요,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영생복락의 지상천국이 적폐청산의 마지막인 ‘평천하(平天下)’ 세상이다.*

안병천 / 승리제단 기획부장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The true nature of Jesus !!
예수의 실체

예수는 성경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생명의 나무 과일이 무엇인지, 선악과가 무엇인지, 죄는 무엇이며, 천국이 어떤 곳이며 어디 있는지, 영혼과 육신의 실체조차 몰랐다.

▶ Jesus did not know the Bible at all. He did not know what the fruit of life was, what the forbidden fruit was, what sin was, what and where the kingdom of Heaven was, what spirit and body were, and so on.

영과 육은 하나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마치 영과 육이 별개의 것인 것처럼 가르쳤다.

▶ Spirit and body are one. But he taught people as if the spirit was one thing and the body another(Luke16:22-24).

하나님의 왕국은 마음에 있다. 반면에 예수는 사람들에게 마치 왕국이 천국 안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오직 양심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다.

▶ In the heart is the kingdom of God(Luke 17:22), whereas he taught them as if the kingdom was in Heaven(John 14:2, Luke 16:26). Only the righteous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whereas he taught them as if the sinful could enter there by themselves(Matthew 11:12).

하나님은 죽음의 신이 아니라 생명의 신이다. 반면에 예수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자신의 목소리는 듣는다고 말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핏값으로 죽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핏값으로 가는 것이다.

▶ The Lord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Luke 20:38, Numbers 16:22), whereas he said that all who were in their graves would hear his voice(John 5:28). It is by the wages of sin that man dies(James 1: 15), and it is also by the wages of sin that man enters Hell.

그래서 모든 죽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운명이고 구원과는 상관 없다. 반면에 예수는 사람들에게 마치 심지어 죽은 사람도 부활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다.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원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것이다. 게다가 그의 예언 대부분은 틀렸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 All the dead are destined to enter Hell and cannot have salvation(Job 14: 10, 14), whereas Jesus taught people as if even the dead could be resurrected and gain salvation. Thus, he was totally ignorant of the words of God. He did not know what faith was, what God was, who the subject to be saved was. Moreover, most of his prophecies were false and not fulfilled.*

by Alice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나'라는 의식이 죄요, 마귀이므로 마귀 욕에 갇힌 하나님(양심의 영, 생명의 영)이 석방되어 나와서 나라는 의식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은 것이요 부활함을 입은 것이다.

바로 이런 상태가 도통한 상태이다.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은 인류 최초로 도통한 분이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마귀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죄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사망의 요소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선악과다

조희성 이긴자께서 전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다

. 이것이 도통이다